

序 文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人間이라면 父母없는 子女 없고 先祖없는 后孫도 없겠으나 나 自身이 어떻게 存在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고 父母를 爲始하여 祖上을 欽慕하는 사람은 그다지 흔하지 않으며 더구나 父母祖上을 崇仰하고 子孫의 道理를 지키며 섬기는 데에 努力하는 后孫은 참으로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무릇 子女가 아무리 父母先祖를 잘 섬긴다고 한들 父母祖上의 陰德에 比한다면 萬分之一이라도 되는가 말이다

穗字始祖以下 仁義禮智의 四端을 基本으로 삼으시고 오직 德과 信으로써 誠實하게 살아오시면서 子孫을 사랑으로 撫育하시고 이 뜻을 感化시키며 國家를 中興하셨던 先祖가 많으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水山一角格이어서 恒常아쉽게만 생각하였었다

그러던 중에 平素愛族心과 慕先心이 남달리 透徹하고 誠意가 至極하던 然興氏(光州盧氏大宗會前事務長)와 錫官氏(同事務長 中央花樹會宗務部長 盧氏三陵壇宗會理事)가各地에 散居하는 光州(光山) 盧氏后孫들을 卞짐없이 巡訪하여 三派 四百餘顯祖의 行狀 史蹟 影幀 墓所 祠宇를 寫眞과 글로 收錄 糾合하였으니 卽분의 生生한 追遠崇慕之誠이 가득

담겨져 있을뿐더러 忘却中인 諸子孫의 慕先心을 일깨워주며 偉大하신 先祖의 일을 새삼 되새기게 하였으므로 일찍이 없었던 巨事요 快事며 참다운 寶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처럼 數年間勞心 焦思 끝에 完決된 寶鑑의 版權을 全적으로 盧氏三陵壇宗會로 獻納하여 壇所守護에 써달라는 前無後無하고 崇高한 精誠은 筆舌로는 表現할 수 없는 龜鑑으로서 높이 讚揚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卽분의 深奧한 뜻으로 編纂한 精誠이 始祖十父子들의 壇所進入路擴張工事에까지 미쳐서 全國宗族의 가슴마다 慕先心을 심어주는데 對하여 再參敬意와 謝意를 드리는 同時에 다만 아쉬운 것은 九伯之派를 總網羅하지 못한 点이라 하겠으나 后孫은 누구나 必讀하여 先祖의 높으신 業을 배우고 익혀서 崇祖悖宗하고 與宗同樂하며 國家社會發展에 貢獻하는 것이 곧 追惟報本하는 길이라고 믿는 忠情에서 敢히 이 글을 쓴다

一九八五年 正月 日

全國盧氏三陵壇宗會

會長 盧地燮 謹識

序文

우리의 오랜 宿願이고 共同의 課題이었던 이 보배롭고 貴重한 遺蹟寶鑑을 내는 데 物心兩面으로 協助해 주신 尊敬하는 全國族人 諸賢에게 먼저 感謝를 드립니다

中庸에서 이르기를 孝는 어른의 뜻을 잘 繼承하고 그 業績을 잘 이어 더욱 發展시키는 것(夫孝老善 繼人之志 善述事者也)이라 했습니다

人類文化와 理想을 繼承하고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文化遺產 즉 祠宇 旌閣 書院等を 잘 保存하여 더욱 創造的으로 發展시키는 것이 바로 繼之速事이며 이것이 또한 孝의 始發이며 끝이라 해도過言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西歐文化의 流入으로 傳統의인 우리 崇祖思想이 점차 稀薄해지느느 느낌이 적지 않으며 우리가 옛것을 찾고 祖上의 史蹟과 功蹟을 기리는 것은 子孫으로서 當爲의인 것입니다

우리 固有의 傳統文化와 祖上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그 命脈을 따라 自己發展을 向한 힘을 培養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傳統이란 지난 過去의 遺物이 아니고 오늘날 當은 母胎이며 그것을 再創造하여 우리의 榮養으로 再活用하는 것이 우리 後代의 責任이자 보람이며 當然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祖上만을 내세우고 그

자랑만을 먹고사는 「못난 後孫」이 되자는 것은 勿論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祖上 빛나는 傳統이 있으니 그것을 본받아 알뜰하게 물려주는 誠實한 繼承者가 되자는 것입니다

「蔓字祖 恕字祖 腆字祖를 비롯하여 節孝公 諱俊字 恭字」 할아버지의 높으신 學德과 孝誠을 본받고 實踐하여 後代에 길이 이어나가야 할 責任과 使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같은 奉先裕後의 精神과 努力이 끝내는 우리 門中을 繁榮케 하고 子孫萬代에 盛旺을 이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곳곳에 묻히고 흩어진 우리 祖上의 빛나는 業績과 눈부신 발자취를 거두어 모아 遺蹟寶鑑을 내는 것이 마치 아무도 모르는 채 숨겨둔 「私匿財產」을 찾아 登記를 마치고 「權利證書」를 손에 권 것처럼 기쁘기 그지없으며 아무 조류이 寶玉처럼 所重한 寶鑑이 全國 方谷谷의 族人들께 널리 알려져서 그 모든 분들이 더욱 爲先愛族하시는 契機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끝으로 이 寶鑑을 내기 爲하여 蒐集에 애써 주신 然興과 이를 編輯 發行해 주신 全國 盧氏 中央花樹會 宗務部長 兼 光州 盧氏 大宗會 事務長 錫官氏에게 再三 深深한 感謝를 드립니다

西紀一九八五年(乙丑)二月 日

全國 盧氏 中央花樹會 副會長

光州 盧氏 大宗會 會長 代行 盧弼煥 謹述

序 文

光州盧氏 遺蹟寶鑑에 붙혀

사람은 누그러나 祖上이 있다 自己로부터 위로 아버지 祖 中始祖 始祖에 이르게 된다 始祖 또한 先祖가 있을 것이나 一般的인 始祖는 文字로 記錄된 사람을 이름이다 바그어 말하면 歷史上 著世한 人物을 말한다 우리 光州盧門의 始祖는 光州伯諱 垓 字祖이다 以來千餘星霜 現在에 이르기까지 많은 列先祖의 훌륭한 事蹟과 遺訓이 許多히 傳授되고 있으나 大部分 漢文으로 읽기 어려워 解得하지 못하고 放置된체 漸次 散逸되고 있다 仔細히 뜻을 두어 熟讀하면 先祖의 宗門形成의 어려웠던 點 忍耐와 슬기 忠誠과 孝道 崇慕愛族 崇尚大義 清濂潔白한 公道를 경으며 宗族을 爲하여 盡心竭力하고 家道를 바로잡아 왔으며 連綿한 家統을 알게 되고 祖上의 事蹟과 遺訓이 뜻하는 바를 나름대로 正確히 認識하여 未來 開拓의 指標로서 發見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時代에 이르러 經濟的 發展과 文化의 發達은 生活의 便益은 圖謀하였으나 外華內貧의 便宜主義的 思潮가 膨大하여 自我를 잃고 彷徨하는 內面的 虛脫感이 充滿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自己의 存在를 잃고 降下되었거나 突出된 것

으로 錯覺하는 日常을 不知不識間에 영위하고 있다 續出하는 強力犯靑少年 老人問題 等等 누그러나 위로는 祖上의 後孫이며 橫的으로는 宗員이며 社會人이요 아래로는 子孫의 先祖가 됨을 忘却하고 生活의 必要에만 副應하는 近視眼的 生活態度인 精神缺與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남의나라 歷史風習 文學等은 잘 알면서 自己先祖의 事蹟이나 遺訓은 알지 못하며 固陋한 것으로 生覺하여 自己意志의 精神缺與와 未洽한 點이 많은 것도 共知의 事實이다 이때에 現世를 살아가는 正道를 祖上의 叡智와 슬기에서 찾는 것이 切實한 때 光州盧氏 遺蹟寶鑑을 寫眞을 결들여 알기 쉽게 編修 發刊하여 後孫은 누그러나 祖上을 崇慕하고 先代의 참 뜻을 되새기고 찾아 받들고 읽어 子孫에게 일러주고 保存하면 큰 보람이 될 것이며 더욱이 事實은 記錄되지 않으면 歷史가 아니라는 말에 時宜適切하게 發刊되었음은 훌륭한 일이며 子孫은 누그러나 職務에 充實하여 宗門과 國家發展에 이바지하는 宗員이 될 것임을 믿으며 寶鑑發刊을 慶賀하며 編修에 全力하신 錫官氏에게 感謝드리며 頭序없는 所懷를 외감되어 적는 바입니다

一九八五年 一月 二十日

서울市 恩平區 葛峴洞 寓居에서

三司公

諱 腆

二十世孫 英錫

(三司公派宗親會會長)

序文

吾盧始祖中國唐朝翰林學士諱德께서 아드님 九兄弟와 함께 東渡하시었다 이때가 新羅憲康王三年西紀八十七年이다 첫 定着地가 平北定州菱里村이시며 九兄弟가 나라이에 忠事하니 光州伯交河伯豐川伯長淵伯安東伯安康伯延日伯平壤伯谷山伯으로 分封받으시었다 그리하여 各其後孫을 封伯으로 因하여 貫으로 定하니 九貫盧氏의 根源이다 九兄弟分의 後裔들은 羅麗朝鮮朝에서 弘大繁昌하여 子子孫孫賢倫大道를 踐었고 두드러진 忠과 孝를 根本삼아 善과 良德을 벗어나지 않았음이 吾盧行道였고 國民의 師表요 國家의 棟樑이였으니 巨誇之事라 史記에 依하며는 數十名의 先祖께서 文武官으로 高名高德之學職派에 政見이 卓越하시고 民情이 明察하시었으며 또한 守國大功이 있고 當代英傑이였으며 其例로는 麗朝政丞光州君諱蔓 御使監察諱承峯獻納諱承綰 諱承慎 大護軍諱恕 上將軍諱宣 持平公諱俊卿侍中公諱仁正 敬平公諱嵩 節孝公諱俊恭 東岳公諱善卿大司成諱光利大司成諱自亨 領議政蘇齋公諱守慎 蘇齋先生께서는 初試會試殿試를 하시고 知學派이시며 一四〇五乙巳士禍時流配困苦하시다 宣祖께서 再登龍하시서 名聲賢官이시다 學文이 退溪河西와 같이 높으시었다 한다 近世에 이르러서는 三

陵壇을 設壇하여 全國盧氏가 한 자리에 모여 壇享을 모시게한 功績이 있으신 後孫 蘇海公諱 鍾龍(現 三陵壇宗會 會長의 曾祖)이 어른의 힘이 아니겠는가 如是例言 不知其數라 省矜하고 吾盧後裔는 先祖의 燦爛하심을 仰慕思謝하여 心氣를 가다듬게 되고 襟衣端正은 勿論行動舉止조차 他的 龜鑑이 되어야 겠다는 浮想激感을 不禁한다 吾盧는 今世直視해도 信永總理를 비롯 長次 官大候學門을 탐구하는 各 大教授등 政治經濟文化面에서 活躍名士多存을 誰何不認하리오 然而先祖偉業傳記讀聽이나 實觀好氣心資에서 墓所遺品書院祠宇墓碑等을 影寫編纂出刊되기를 希求했는데 대마침 門中道袍이신 地燮宗會長 然興族祖大宗會事務長錫官族人의 心血傾注累霜過歲此를 完成出刊한다니 이는 곧 聖大巨役이며 光州派寶冊이다 勞苦之三人께 滿腔의 慶賀를 드리고 光州派家戶마다 一帙卷式所藏되기를 苦待하는바이다

敬平公宗親會顧問 順亨公 十三世孫

容煥 謹書

三陵壇事蹟碑銘請文記

唐朝翰林學士盧德吾始祖也率九子與八學士東來仕羅朝有樹勳封爵曰光州伯垓交河伯塢豐川伯址長淵伯址

跋

遺史에 記錄된 光州盧氏(光山盧氏) 祖上님께서
는 忠孝를 家訓삼아 忠孝道德學行等 名賢이 多大
하다

始祖 唐朝翰林學士(翰林府君) 諱穗字祖께서 아
드님 아홉을 데리고 東渡(江을 건너) 하시었다 東
渡하신 以來 千百餘年の 歲月동안 世代가 變遷되
고 數많은 風想을 겪으며 記錄과 文籍等이 數多하
게 消失되고 墓所와 遺蹟도 失傳되어 族門을 빛내
顯祖의 行狀을 傳承치 못하고 滅失되었다 人間이
관 世上에 나와 姓을 라고 이름을 가진다 血脈이
음직이고 血統(뿌리)은 永遠히 變함이 없다 우리
後孫들은 血統을 알고 이 뿌리를 알면은 先祖의
陰德을 敬慕하여야 되겠다 今般 翰林公 長子 諱 垓
光州伯 後孫에 限하여 先祖의 遺蹟과 祖上의 來歷
墓所等을 探究하고 祖上님을 追慕하며 偉大하시
었던 일을 되새기기 爲하여 龜鑑으로써 後世萬代
에 걸쳐 繁榮과 傳承을 하고자 編輯했다

本遺蹟寶鑑을 發刊함에 있어 事業의 目的은 三
陵壇 造景事業費로 使用함이며 이 重大한 兩事業
을 不肖小族이 資料收集하였으나 좋은 作品을 이
르지 못하였음을 祖上님께 송구스럽게 限이 없으
며 族門族人們께 深深한 謝過를 드리며 이 記錄은

正史 또는 國家에서 만든 寶錄等에 根據한 것이며
資料를 모으는데 저나름대로 全國에 散在된 光州
盧氏 世居地만을 歷訪하면서 先代祖遺蹟地와 墓所
를 찾아 寫眞도 촬영하고 各族門을 찾을때 各族門
어른들께서 協助하여 주신데 感謝함을 禁치 못하
며 小族이 近 五年間에 걸쳐 全國各地 族門을 歷
訪하면서 깊은 感懷와 所感이 많으나 記錄치 못함
이 아쉽기 그지 없으며 光州派는 先祖로써 不義
를 排除하고 正義를 追求하며 志操있고 清白한 氣
志族門을 깨끗이 이어가는 盡力하신 흔적이 역역
하다 어느 곳 어느 宗門이나 古代의 高潔하신 家
風이 遺傳되어 있고 우리 祖上님들은 偉大한 名門
大家임을 나타내고 있다 各族門을 巡訪時 各道 各
郡 各邑面을 걸쳐 그때마다 郡邑誌를 살펴보면은
特異하게 記錄이 되어 있다 數百年前부터 祖上님
들의 그 고을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清廉하시고
爲國忠節하신 治蹟碑 善政碑 頌德碑 등이 세워졌
고 地方文化財로 指定받은 遺蹟과 旌閭門 孝烈碑
等 古風을 자랑 萬人의 崇拜를 받고 있으며 族門
의 世居地를 살펴보면은 國亂으로 因하여 祖上님
들의 入鄉地가 變動이 있다고는 본다 海邊을 中心
삼고 있는가 하면 山中 車道가 없는 數里를 徒步
로 가야되는 族門 洞口에는 古風建築에 祠宇 亭子
旌閭 書院이 보이며 一村을 이루고 祖上님을 모시

고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로도 간데없고 자랑스
럽고 보람을 느끼는 바 크다 하겠다

再三感謝드리고저 하는 것은 族門에 어른들께
서 史記와 文集등을 提稿하여 주시고 資料收集에
協助하여 주신 勞苦가 血肉의 情이란 重厚함을 다
시한번 實感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祖上님 蔭
德에 힘입어 공지를 갈고 遺蹟發掘에 勞力함과 同
時 保存에 全力을 傾注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編輯
時 又是 校正에 不充分한 點이 있더라도 寬大히
보아 주시옵고 後裔들은 一層더 團合을 鞏固히 하
며 忠孝를 家訓삼아 先祖님들의 遺事 遺德에 損塞
이 없도록하여 子孫萬代에 發展과 繁榮이 充滿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一九八五年 五月 日

盧氏三陵壇宗會理事

盧氏花樹會中央會宗務部長

// 宗報社業務部長

光州盧氏大宗會事務長

後孫 盧錫官 謹識

三陵壇宗會會長團

會長 盧地燮 光州市東區大義洞七六一二

副會長 炳奎 // 北區新安洞四七八一一八

// // // //

陽來 忠南舒川郡麒麟山面斗北里
秉日 全北任實郡三溪面後川里
世永 忠北清州市石橋洞一二五—四八
時夏 大邱市南星洞一〇五



景光享壇

監事 // // //

永星 서울道峰區孔陵一洞三七九—九
東奎 釜山市東萊區連山五洞一三五六
釋來 忠南舒川郡箕山面斗北里
相玉 全北南原郡朱川面虎基里